

“美-中 코로나 책임공방 무역분쟁 확산 우려”

중기 86.3%가 응답... 대응전략으로 '별도 방안 없음' 이 가장 많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의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역 분쟁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3%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중간 책임공방으로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것이라고 답했다. 확산 시 예상되는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1년 이내' 응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3년(31.7%)', '6개월 이내(15.7%)' 순으로 나타났다.

미·중간 무역 분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절반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51.3%)'라고 답했으며, '영향 없음(47.0%)', '긍정적(1.7%)'이 뒤를 이었다.

답 기업 154개사, 복수응답)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71.4%), '미·중 환율전쟁으로 인한 변동성 증가(38.3%)', '중국 시장 위축에 따른 중국 수출 감소(34.4%)', '중국 내 생산기지 가동률 저하 및 타국 이전 압박(9.7%)'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전략으로는 '별도 대응방안 없음(42.0%)'이 가장 많아 대외 리스크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거래처 및 수출시장 다변화(32.7%)',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17.3%)', '환변동 보험 가입 등 환리스크 관리 강화(17.0%)', '생산기지 이전(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중 분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정부 중점 과제(복수응답)로는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해외시장 정보제공 강화

(41.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37.0%)', '환율 변동 대응 등 외환 시장 안정화(32.3%)',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강화(28.3%)',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16.3%)', '국내 등 생산기지 이전 중장기적 지원(10.7%)' 순으로 응답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중간 코로나19 책임공방과 홍콩보안법 통과로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확산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에게 최악의 상황으로, 정부는 시나리오별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주요 현안사업 추진 '순풍'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에서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사는 2020년 반환점을 맞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중간점검결과 모두 정상 추진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

은 현재 10개단지 4,249세대를 관리·운영중이며, 1개단지 80세대는 오는 8월 입주예정이고, 2개단지 928세대는 전주와 군산에 추가로 건립중에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순창 순화지구 등 지역별로 맞춤형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친환경 수초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

주와 익산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지자체 대행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역점사업인 '재생에너지 정부 3020계획' 이행을 위한 100M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전북 금융센터 건립사업,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도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의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발대식

백년가계 전북지역협의회는 8일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 꿈이룸에서 입주업체들과 함께 '전북 소상공인 프로보노단' 발대식을 열었다.

포용적 금융 실천

전북은행, 서민금융 지원 노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정부의 포용적 금융 강화 노력에 발맞춰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실천으로 서민금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난 6월 전세 신용대출 중 중금리대출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15.29%로 포용적 금융 실천에 적극적으

털 없는 복숭아

품종 특성 확인하고 재배를

농진청, '옐로드림 등 수확기 확인하고 방제 신경 써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일명 천도복숭아로 불리는 '털 없는 복숭아' 새 품종을 선택할 때는 품종 특성부터 살펴야 한다고 8일 당부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의 복숭아는 털이 있는 복숭아(peach)와 털 없이 먹는 천도(nectarine) 품종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천도 가운데서도 신맛은 낮추고 달콤한 품미는 살린 '스위트퀵(달콤한 천도)' 품종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 천도 품종의 도입을 원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보급한 달콤한 천도 '옐로드림', '스위트퀵', '이노센스'의 특성과 재배 정보를 소개했다.

'옐로드림'은 속이 노란 황육계 천도로 속기는 7월 초이며, 열매 무게는 250g, 당도는 13.6브릭스(Brix)이다. 산도(신맛)는 0.25% 정도로 기존 천도인 '선프레', '천홍'의 산도 0.90%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이 품종은 착색성이 약해 익은 뒤에도 껍질 전체가 붉게 익지 않으므로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실이 커지는 시기 열매 터짐(열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볼록 가를 때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 햇빛을 바로 받는 부위의 과실은 봉지를 씌우는 것이 좋다.

'스위트퀵'은 황육계 천도로 속기는 8월 초이며 열매 무게는 280g, 당도는 14.5브릭스, 산도는 0.25%이다. 향이 풍부하고 맛도 달콤한 품종이다. 꽃 피는 시기 서리 피해에 약한 편으로 저온이 지속될 경우 결실률이 떨어지거나 비

대칭 과일 등 상품성 낮은 과일이 발생할 수 있다. 초봄에 기온이 낮지 않고 서리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해야 품질 좋은 열매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노센스'는 8월 초·중순 수확하는 속살이 하얀 백육계 품종으로, 열매 무게는 230g, 당도는 14.0브릭스(Brix), 산도는 0.33%이다. 같은 시기 유통되는 다른 품종보다 크기가 작으므로 꺾꽂이와 열매숙기를 꾸준히 해서 과일을 크게 키우고, 착색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기 수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옐로드림', '스위트퀵', '이노센스'는 다른 천도와 마찬가지로 세균성 구멍병 등 병해충에 약한 편으로 비가 자주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방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옐로드림'은 2016년 육성해 2018년부터 농가에 묘목을 보급 중이며, '스위트퀵'과 '이노센스'는 2017년 육성해 지난해부터 묘목을 보급하고 있다. 묘목 구매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해당 품종을 통상 실시 받은 종묘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종묘 업체는 (사)한국과수종묘협회 ☎064-435-53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박정관 과장은 "최근 유통되는 달콤한 천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새 품종의 장점을 아끼고 약점도 꼼꼼히 파악해야 성공적인 재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개인형 IRP 신규 가입고객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은 9월 30일까지 농협은행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하거나 타기관 IRP(또는 연금저축)에서 계좌이체(계약이전)를 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2,020명을 추첨해 LG스타일러, 다이스 에어랩, 에어팟, 농산물꾸러미,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응모대상은 이벤트 기간 중 ▲농협은행에서 개인형IRP를 신규로 가입한 고객(개인부담금으로 10만원 이상 신규 및 10만원이상 자동이체 등록 또는 퇴직금 3백만원 이상을 수령한 고객) ▲타기관 IRP에서 100만원이상 농협은행으로 계약이전한 고객이며, 스마트폰·인터넷뱅킹 및 울원뱅크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응모 가능하다.

장기요 본부장은 "저금리 기조에 직장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연금 개인형IRP 수수료율을 과감히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고객의 소중한 노후자산을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장마철 침수피해 예방 '최선'

농어촌공 전북본부, 배수장 정비 등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배수로 퇴적물 제거와 배수장 점검·정비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북도 관내 71개 배수장(배수장 51개소, 양배수장 13개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를 마쳤으며, 타작물 재배단지와 시설하우스단지 등의 침수에 대비해 배수로(1,348km) 퇴적물 제거를 실시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도내 배수개선 사업지구의 수초제거를 위한 예산 7억원을 추가지원 받아 삼습침수지역의 배수로(35.8km) 퇴적물을 제거함으로써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

에 의한 침수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협업매칭의 일환으로 '긴급재난문자와 연계한 농업용수 담당자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자체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에 공사의 농업용수 담당자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긴급재난상황 시 농경지침수 및 안전시설물피해 사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농어촌공사 동진지사가 김제시와 협의를 마쳐 협업매칭 제1호로 선정됐으며, 도내 다른 지자체와도 서비스 운영을 협의 중이다. /김윤상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